

“고용의 질 나빠졌다… 규제개혁으로 민간 활력 높여야”

경총, 고용 흐름 3가지 특징·시사점
코로나·최저임금 상승에 취업자 ↓
임시·일용직 증가… 고용 불안 심화

〈2021년 1분기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체 임금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소계	종사상지위별		연령대별			
		상용직	임시·일용직	60세 미만	60세 이상		
-20.6만명	+3.6만명	0	+3.7만명	-2.9만명	+6.5만명	-16.6만명	-7.6만명

고용 시장이 단기·고령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고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 부문 활력 증진과 고용보험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 특징이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코로나19 위기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

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등 3가지 증가라고 봤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6000명 줄었지만,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만6000명 늘었다. 임시 일용직이 3만7000명, 60세 이상이 6만5000명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과 60세 이상이 2019년 1분기 이후 지속 증가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주 15시간 미만취업자도 늘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분기까지 전체 취업자가 평균 38만6000명 감소한 반면, 초단시간 일자리는 평균 3만명 늘어난 것.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 60세 미만에서 더 뚜렷했다.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코로나19 본격화로 1년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전체 실업자 21만8000명 중 85.3%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증가한 실업자 21만8000명 중 80.3%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불안전 취업자도 1분기 취업자가 38만명 줄어든 것과 달리 25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분이 높았다.

경총은 코로나19 충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이같은 현상으로 고용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총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 ‘불안·무기력’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49.8%, 중소기업 의향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 자신감, 만족감 등 구직을 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불안, 무기력, 우울함 등 부정적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구직 청년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수준’, ‘일·여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청년들이 구직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임금 만족도’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이 앞섰다.

이같은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년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구직(복수 응답)하면서 ‘불안’ (82.6%), ‘무기력’ (65.3%), ‘우울함’ (55.3%), ‘좌절감’

(50.1%) 등을 ‘기대감’ (13.1%), ‘자신감’ (6.6%), ‘감사함’ (2.8%), ‘만족감’ (1.1%) 등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의향이 있느냐’는 응답엔 청년 49.8%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30.8%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19.4%는 ‘아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숫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적다고 생각해서’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일·여가의 균형 실현이 어렵다고 느껴서’도 21%로 적지 않았다. ‘기업에 대한 낮은 평판과 주위의 시선 의식’도 13.6%였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구직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 (27.9%)을 1순위로 꼽았다. ‘임금 만족도’ (25.9%)는 2위였다. 다만 복수응답을 통해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선 ‘임금 만족도’가 70.9%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 (54.7%)을 앞질렀

다. 청년들은 또 81.1%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실제 청년고용률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체감고용률을 40% 미만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73.5%),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70.3%) 등을 들며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백동욱 청년희망일자리 부장은 “청년구직자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 고용시장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번 조사는 향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를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새로운 인재의 유입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이어주는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의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청년구직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KT 김준근 본부장(왼쪽부터), 우리은행 DT추진단장 황원철 부행장, 한국IBM 송기홍 대표이사 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KT, 우리은행-韓IBM과 ‘AI 랩’ 구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 고도화

KT는 우리은행, 한국IBM과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랩’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3사는 ‘AI 랩’을 통해 ▲금융 언어모델 고도화 ▲불안전판매방지 고도화 ▲AI 모델링을 통한 자산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AI 전환 솔루션을 개발 및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금융 디지털 혁신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KT는 우리은행, 한국IBM과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랩’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금융 언어모델 고도화는 금융권 음향·언어모델을 자연어처리(NLP) 신기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딥러닝해 지속적인 학습으로 금융에 최적화된 언어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또 최근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상품 권유 시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AI로 금융 분야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우리은행은 KT와 불안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 충격, 여성에 더 컸다… 취약한 업종에 육아부담까지

여성 취업자수 최대 5.4% 감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기존 경기침체기와 달리 고용 충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여성 일자리가 감염병에 취약한 비필수직, 대면접촉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다 방역 대책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육아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남성 취업자수는 최대 2.4% 감소에 그친 반면 여

성 취업자수는 최대 5.4%까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성별 고용충격의 격차는 방역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는 시기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남성고용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남성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남성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악화는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와 비교할 경우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다.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동안 여성 실

업률이 남성실업률보다 1.7%포인트 더 상승했다”며 “성별 고용충격 패턴의 변화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와 일반적인 경기침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과거 경기침체기와 달리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여성 일자리는 감염병에 취약한 비필수직, 고대면접촉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해외 직구도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들어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통계 이래 처음 31조원을 넘어섰다. 옷, 화장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36조8301억원) 대비 21.3% 증가한 44조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24조7966억원)보다 26.3%

증가한 31조3169억원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77.0%), 가전·전자·통신기기(45.0%), 음·식료품(35.2%) 등에서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20.2%), 화장품(-14.0%) 등은 감소했다.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뜻하는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1조4125억원이었다. 이 또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해외직구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5391억원), 중국(4578억원), 유럽연합(2826억원), 일본(733억원) 등의 순이었다. /원승일 기자 won@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 통계 이래 첫 31조